

세월호가 탐욕을 제어할 제어 장치가 고장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향해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라면, 정부와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시스템을 달게 고쳐야 한다. 교회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회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그것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선용하여, 세월호 재앙을 구속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월호가 끔찍한 사건임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 하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얼마나 더 무서울 것인지 인지해야 한다(살전 1:10).

헤르만 바인크의 창조와 성경이 이끌어온 나타난 연속성과 불연속성

Continuity & Discontinuity in Herman Bavinck's
Understanding of Creation and Providence

이 신 열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의학 교수

목 차

- I. 시작하는 말 | 57
- II. 창조 | 58
- III. 섭리 | 67
- IV. 두 교리에 나타난 연속성과 불연속성 | 75
- V. 평가 및 맺는 말 | 82



헤르만 바빙크의 창조와 섭리 이해에 나타난 연속성과 불연속성

바빙크는 창조를 무로부터의 창조, 삼위일체론적 창조, 그리고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보자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한다. 무로부터 창조에 대한 이해는 물질의 피조와 관련해서 직접성과 간접성의 관점에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의 개념의 구분을 이끌어 내었다. 삼위일체론적 이해에 있어서 바빙크는 삼위일체론과 창조론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창조가 하나님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내세움에 있어서 이를 지나치게 헬라 철학의 이데아론에 종속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는 비성경적인 견해이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로서 그를 통해서 만물의 피조가 가능했음을 뜻한다. 바빙크는 성자의 출생을 신적 본질의 완전한 전달로서의 유출로 파악하지만 창조는 신적 본질이 바유적이며 불완전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바빙크는 자신의 섭리 이해를 전통적 개혁신학에서 논의되어 왔던 보존, 협력, 통치의 세 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이 논의에 나타난 특징은

이 세 가지 주제들 사이의 공통점에 대한 강조에서 발견된다. 바빙크는 창조와 섭리 사이의 관계를 보편성의 관점에서 일종의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보편성의 실제로 구현에 있어서 단회성/지속성, 하나님의 외향적/내향적 사역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양자 사이의 불연속성이 드러나게 된다. 바빙크는 범신론의 경우 창조와 섭리가 지나치게 동일시되어 양자사이에는 연속성만이 존재하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신론의 경우 창조와 섭리 사이의 불연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양자 사이의 연속성은 사실상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의 도치라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조는 전적으로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고찰되었지만, 섭리에 있어서 이러한 삼위일체론적 고찰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에 양자 사이의 형식적 (formal) 불연속성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불연속성이 곧 본질적 (essential) 불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삼위일체론적 이해는 양자 사이의 연속성의 핵심은 창조주이자 섭리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

*Continuity & Discontinuity in
Herman Bavinck's
Understanding of Creation and
Providence*

주요어

헤르만 바빙크, 창조, 섭리, 연속성, 불연속성

Abstract

**Continuity & Discontinuity in Herman Bavinck's
Understanding of Creation and Providence**

Prof. Dr. Lee Samuel-Y

Bavinck discusses his understanding of creation from the following three points: creation from nothing (*creatio ex nihilo*), the trinitarian perspective, and Christ as the mediator of creation. *Creatio ex nihilo* has necessarily produced a two-fold understanding consisting of the first creation & the second creation. In hi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creation Bavinck has correctly emphasized a continuity between the doctrine of Trinity and creation. However, Bavinck, with his emphasis on the divine idea, has wrongly exhibited a strong tendency to accept and utilize the Platonic concept of 'idea'. Christ as the mediator of creation shows that all things were created by and through Him. The generation of the Son is understood as emanation and thus perfect communication of the essence of the God the Father, while creation as a parabolic and imperfect communication. Bavinck's understanding of providence is presented along the three elements of preservation, cooperation, and government, which had long been the subjects of discussion in traditional Reformed theology. These three elements are viewed not as

separate entities but as sharing common points.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on and providence, as proposed by Bavinck, seems to have continuity as they ar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ty. In actual realization of this continuity, discontinuity between the two is revealed as we consider them in terms of singularity/perpetuity and God's external/internal work. Bavinck further delineates, in the case of pantheism, creation and providence are virtually identified so that there only remains continuity between them. In deism, however, discontinuity is strongly emphasized that continuity between them is almost eliminated unless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or and creatures is completely reversed. Lastly, while creation has been solely discussed in terms of the doctrine of Trinity, it is not true anymore in the discussion of providence. Here we find a formal discontinuity between the two. In Bavinck's thought, however, this formal discontinuity does not simply result in essential discontinuity. Because hi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the Trinity informs us the essence of continuity is guaranteed by the work of the God the Holy Spirit, the Creator and the Provider.

Keywords

Herman bavinck, Creation, Providence, Continuity, Discontinuity

I. 시작하는 말

헤르만 바빙크 (Herman Bavinck, 1854-1921)는 네덜란드의 대표적 개혁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보편성이라는 토대위에 다양한 교리적 주제들을 통일성의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신학화하였던 영향력 있는 탁월한 신학자이었다.¹⁾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신학에 나타난 다양한 교리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제시되었지만 창조론과 섭리론에 대한 글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로는 먼저 상대적으로 신학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제가 그의 신학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창조학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창조론에 대한 지평을 크게 확대시켰는데 바빙크의 역작 <개혁교의학>은 100여 년 전에 집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당대의 과학적 발전과 연구 결과에 비판적으로 반응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의 창조론에 반영되어 진화론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창조를 무에서의 창조를 넘어서서 섭리론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다.²⁾ 따라서 창조와 섭리의 차이보다는 두 교리가 어떻게 차별화되지 아니하고 동일선상에 놓인 개념인가를 전제로 삼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섭리론은 창조론

1) J. Veenhof, *Revelatie en inspiratie: De Openbarings- en Schriftbeshowing van Herman Bavinck in vergelijking met die der ethische theolog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1968), 263ff.

2) Howard J. Van Til, Robert E. Snow, John H. Stek & Davis A. Young, *Portraits of Creation: Biblical and Scientific Perspectives on the World's Form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0), 212ff.

에 함몰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창조론과 섭리론을 그의 <개혁교의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비교 분석하되 이를 더욱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그의 창조론과 섭리론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본 후에 이에 근거하여 두 교리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비교 고찰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II. 창조

바빙크의 신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는 유신론적 일원론인데 이는 범신론과 유물론을 전적으로 배격한다.³⁾ 창조론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성경적 창조 개념을 부인하는 이원론 (dualism), 범신론 (pantheism) 그리고 유물론 (materialism)과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⁴⁾ 고대 이방 종교는 근본적으로 이원론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세상이 두 적대적인 원리들의 투쟁의 결과로 산출된 것이라고 보았다.⁵⁾ 헬라 철학자들도 궁극적으로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이원론적 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창조를 형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머물렀다. 범신론은 신을 단일적 보편 존재, 만물의 원인이며 또한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였지만 실제로는 창조가 지성의 방해물이라는 이유로 성경적 창조론을 거부하였다.⁶⁾ 만물의 궁극적 원리를 티끌(물질)로 간주하는 유물론

은 물질의 불변성, 무한성, 영원성을 주장하면서 세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내적 모순에 빠진다. 이는 물리적인 것과 형이상학적인 것을 혼동한 결과이며 경험론적인 차원에서도 뒷받침될 수 없으므로 정밀과학이 아니라 모든 철학을 부정하는 또 다른 철학에 불과하다. 이 사고의 근간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물질을 신격화하는 것이므로 성경적 창조론은 단호하게 거부된다.⁷⁾

이러한 사고들에 대항해서 바빙크는 참된 종교는 성경적 창조론,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힌다.⁸⁾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출 20:11; 느 9:6; 골 1:16-17; 계 4:11; 롬 11:36; 히 11:3). 그러나 성경은 이 관계에 있어서 유출 개념에 근거한 혼동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한다.⁹⁾ 이러한 관계에 근거해서 올바른 신학적 세계관이 설정된다.¹⁰⁾ 이 세계관은 피조세계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 질서와 조화를 지닌 일원론적 체계이며 더 나아가서 이는 하나님의 통일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삼는다. 바빙크는 디오니시우스 (Dionysius)가 세상을 하나님이 중심점이며 이에 속한 모든 피조물은 그 분을 중심으로 삼는 동심원이라는 주장을 언급한다. 이 세상은 이원론적 영지주의의 주장처럼 하나님에 대결해서 극복해야 하는 어떤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그의 소유물이며 (창 14:19, 22; 시 24:1-2; 89:11, 95:4-5) 하나님의 지속적이며 내재적 원인에 해당하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존재이다.¹¹⁾ 그렇다면 바빙크는 성경적 창조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7) Ibid., 521.

8) Ibid., 511.

9)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원광연 옮김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196; 바빙크, 『개혁교의학 2』, 522.

10) 바빙크, 『개혁교의학 2』, 550.

11) Ibid., 526.

3) 헤르만 바빙크, 『계시철학』, 위거찬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85), 116.

4)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2』, 박태현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518.

5) Ibid., 596-98.

6) Ibid., 514-15.

그의 창조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에서의 창조, 삼위일체론적 창조, 창조의 중보자 그리스도.

1) 무로부터 창조 (*creatio ex nihilo*)

바빙크는 무로부터 창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였던 ‘아무 것도 무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ex nihilo nihil fit*)’라는 명제가 기본적으로 비존재가 존재의 근원 또는 원리임을 보여주는 규칙으로 이해한다. 비존재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무형의 물질 (*amorphous material*)에서 모든 존재가 비롯되었다는 이교도적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성경적 창조 교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바빙크는 무로부터 창조라는 용어가 비록 성경에 문자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¹²⁾ 여기에서 ‘무’는 신적 개념을 지칭하는 비존재인 동시에 존재, 무인 동시에 모든 것, 가능성과 구체성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가능한 이미 존재하는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 ‘부정의 무’ (*nihil negativum*)를 뜻한다.¹³⁾ 여기에는 신적 본질의 유출이라는 개념이 전적으로 부인되며 세상은 신적 본질과는 다른 고유한 본질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 용어는 범신론적 차원에서 언급되는 유출과 이에서 비롯된 하나님과 세상의 본질적 일치와 이에서 비롯되는 양자 사이의 혼동을 완전히 배제한다.¹⁴⁾

이 용어는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된 창조를 가리키지만 1장 3절 이하에 언급된 6 일 동안의 창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⁵⁾ 이는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창조, 즉 이용 가능한 물질의 존재를 전제로

12) Ibid., 523, 525.

13) Ibid., 522, 527.

14) Ibid., 525.

삼지 않고 시간의 창조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창조로서 첫 번째 창조에 해당된다. 존재하게 된 것은 이미 존재하였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만 존재하게 되었음을 뜻한다.¹⁶⁾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완전한 독립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3절에 언급된 창조는 두 번째 창조로서 1절에 언급된 피조된 물질을 전제하며 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간접적이며 비즉각적 (*mediate*) 창조이며 6일에 해당하는 시간 안에서 발생했다. 성령의 단장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비옥하게 되었으며 그 땅위에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¹⁷⁾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를 구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바빙크는 2절에 언급된 땅을 설명하면서 사용된 ‘깊음’, ‘공허와 혼돈’과 같은 용어들이 1절의 창조행위를 통해 존재하게 된 땅이 본래부터 지니게 된 무형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해석한다.¹⁸⁾ 이는 어떤 신학론적 연상과 관계없이 순수한 의미에서 아직 정형화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미 피조되었으나 아직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원시적 상태 그대로의 땅을 가리킨다. 즉 2절의 형태가 없는 상태의 땅은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를 구분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공허’라는 단어는 피조물보다 먼저 텅 빈 형식으로 존재한 채 피조물들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상태로, 빛과 어두움으로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물과 마른 땅과 바다 등의 여러 개체들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였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¹⁹⁾

15) Ibid., 599-600.

16) Ibid., 525.

17) Ibid., 523, 622-23.

18) Ibid., 597.

19)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202-3.

2) 삼위일체론적 창조

바빙크는 삼위일체론을 논의하면서 피조물들이 삼위일체의 흔적들 (vestiga trinitatis)이라고 주장한다.²⁰⁾ 이는 하나님이 본성에 있어서 충만한 생명이며 생산적이며 열매를 맺으며 확대, 전개, 전달이 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에 기인한다.²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존재 안에 자기 생명의 무한한 충만 가운데 최상의 다양성을 지니신다.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피조세계에 나타난 다양성이다.²²⁾ 하나님이 생명의 풍성함을 지니고 계시므로 그에 의해 지금 받은 세상도 풍성한 다양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고 자신의 영을 보냄으로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고 이를 풍성하게 만드신다. 창조는 로고스를 통해 중보되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피조세계에 내재하시며 만물을 돌보신다.²³⁾ 따라서 바빙크는 두 교리 (삼위일체론과 창조론)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창조론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서만 견지될 수 있다고 밝힌다.²⁴⁾

그렇다면 그의 창조사역은 바빙크에 의해 삼위일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는 종교와 신학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 원리로, 하나님의 영을 주관적 원리로 갖는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객관적/주관적 원리는 사실상 자신이

20) 바빙크, 『개혁교의학 2』, 420.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더욱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만물은 최상이고 동일하며 변함없이 선한 이 삼위일체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온 피조세계는 삼위일체의 흔적이다.”

21) Ibid., 387-88.

22) Ibid., 324.

23) S. Meijers, *Objectiviteit en existentialiteit: een onderzoek naar hun verhouding in de theologie van Herman Bavinck en in door hem beïnvloede concepties* (Kampen: Kok, 1979), 100-2. 메이어스는 창조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을 일반 섭리의 차원과 관련짓는다. 즉 창조와 섭리는 성령론적 차원에서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24) 바빙크, 『개혁교의학 2』, 530, 419.

내세운 신학의 본질적 기초원리(principium essendi)를 창조라는 계시에 적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객관적 계시는 신학의 ‘외적 인식의 기초원리 (principium cognoscendi externum)’이며 성령은 그 ‘내적 인식의 기초원리 (principium cognoscendi internum)’에 해당되기 때문이다.²⁵⁾

이를 구체적으로 성자와 성령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의 관점에서 성자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성부가 성자 안에서 선언하는 말씀은 신적 존재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며, 따라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피조물로서 신적 존재의 외부에 존재하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기도 하다.”²⁶⁾ 말씀인 로고스는 성자와 구별되고 그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성자의 고유한 명칭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인격을 뜻하는데 그는 태초부터 존재했다 (요 1:1).²⁷⁾ 로고스는 창조를 통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 자신이었다 (요 1:3). 성부는 자신을 로고스에게 절대적으로 전달했고 로고스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전달하신다. 로고스를 향한 성부의 자기 전달은 삼위일체적으로 출생 (generation)에 해당되는데 이는 창조라는 외적 계시를 가능하게 만든다. 어거스틴은 이 자기 전달을 창조 사역의 모델 또는 원형으로 파악하였다.²⁸⁾

성령은 인격적, 내재적 원인으로서 자신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살고 움직이도록 구체적 모양과 형태를 제공하며 이 목적을 향하여 만물을 인도한다.²⁹⁾ 성자의 창조사역이 성자를 향한 성부의 자기 전달에 해당하는 발생을 모델로 삼는 것과 같이 성령의 동일한 사역도 신적 존재 안에 이루어지

25) 바빙크, 『개혁교의학 1』, 657.

26) 바빙크, 『개혁교의학 2』, 534.

27) Ibid., 340.

28) Ibid., 419-20.

29) Ibid., 531.

는 자기 전달을 원형으로 삼아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적 존재 내에서 성령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전달은 성령의 발출 (spiration)에 해당되는데³⁰⁾ 이는 그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filioque)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한다.³¹⁾ 그렇다면 성령의 창조사역은 성경에서 어떻게 제시되는가? 이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6일간의 사역에 해당되며 두 번째 창조를 가리킨다. 이 창조사역의 특징은 구분 (distinctio)과 장식 (ornatus)으로 정리될 수 있다.³²⁾ 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신이 수면위에 운행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땅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물에 형태를 부여하고 생명을 일으키게 함으로서, 6일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피조물들이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성자, 즉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직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실행이라는 차원을 강조한 반면, 성령을 통한 사역은 창조의 실제적 완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바빙크가 내세우는 창조에 관한 이데아적 이해가 역사 속에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성경적 개념을 벗어난 철학적 개념으로서 비판의 대상에 해당된다.³³⁾

30) Ibid., 393.

31) Ibid., 403. 바빙크는 여기에서 어거스틴의 주장을 인용한다: “성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지만, 성자는 오로지 성부의 보내심을 통해서만 나오고(마 10:40; 막 9:37; 루 9:48; 요 3:16, 5:23, 30, 37, 6:8ff 등), 다시금 성령은 오로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만 보내심을 받는다(요 14:26, 16:7).”

32) Ibid., 600-3.

33) Ibid., 252-57, 419, 533-34. 바빙크가 내세우는 창조의 관념적 이해는 성부가 창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신 속에서 생각하였으며 이를 성자 안에서 말씀으로 표현하여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모든 것은 더 높은 실재의 반영이라는 세계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개념은 원래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의 사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R. H. Bremer, *Herman Bavinck als dogmaticus* (Kampen: Kok, 1961), 208-10; Meijers, *Objectiviteit en existentialiteit*, 98-99; Cornelis van der Kooi, “Herman Bavinck and Karl Barth on Christian Faith and Culture,” *Calvin Theological Journal* 45 (2010), 76-77.

3) 창조의 중보자 그리스도

바빙크는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보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창조와 유출 (emanation)의 차이점에 주목한다. 유출은 한 존재의 본질이 다른 존재에게 전달되는 것을 가리키므로 두 존재 사이에 본질적 일치가 발생한다. 이는 한 존재의 본질이 다른 본질로 흘러 들어가 (uitstromen) 거기에서 그 본질을 전개시키고 (ontplooiien) 원래 본질의 일부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경적 개념으로서 창조는 비존재가 존재로 나타나는 세상의 전이 (overgang)를 뜻하므로 여기에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본질적 일치가 배제되며 피조물은 자신만의 고유한 본질과 존재를 지닌다.³⁴⁾ 창조자의 능력에 의해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비존재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의해 본질상 창조자와 본질상 전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³⁵⁾ 이런 의미에서 경륜은 피조물의 유효적 원인 (causa efficiens)에 해당된다.³⁶⁾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지 (시 115:3; 단 4:35)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피조물의 존재의 내재적 원인 (causa immanens)은 자신이 아닌 창조자 안에서 발견된다.³⁷⁾

이러한 유출과 창조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바빙크는 이를 신적 존재 내의 위격적 차원에 적용시킨다. 신적 내부에 있는 위격들 간의 상호 교통 (성자의 출생과 성령의 발출)을 본질로부터의 교통이라는 차원에서 유출의 관점에서 이해한다.³⁸⁾ 성자의 출생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34) 바빙크, 『개혁교의학 2』, 525-26.

35) Ibid., 389.

36) Ibid., 465 유효적 원인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임이 강조된다.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193, 197.

37) 바빙크, 『개혁교의학 2』, 526.

38) Ibid., 527.

유출의 한 형태인 성부의 본질이 성자에게 주어지는 본질적 전달로 이해된다. 그러나 바빙크가 말하는 유출이란 범신론적 차원의 무의식적이며 주체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무작위적 유출과는 다르다.³⁹⁾ 이런 의미에서 바빙크는 기독교 신학에서 유출과 창조의 개념 모두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성자에게 영원히 전달되며, 창조를 통해 단지 하나님의 희미하고 약한 비유만이 피조물에게 전달된다.” 이에 근거해서 바빙크는 “만일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창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선언한다.⁴⁰⁾ 성자의 영원한 출생과 피조세계의 창조는 다른 하나님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전자 없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해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약성경의 가르침 (요 1:3; 고전 6:8; 골 1:15-17)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 (계 3:14)이며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계 1:17, 21:6, 22:6)으로 지칭된다. 바빙크는 이를 이데아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창조는 자신의 원인과 모델인 성자 안에 기초하며, 성자로부터 발생한다.”⁴¹⁾

그러나 위에 언급된 성경구절들을 통해서 바빙크는 그리스도가 또한 세상의 최종인 (*causa finalis*)임을 지적한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미덕을 계시하고 그를 칭송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의 통치의 차원에 관한 것이다.⁴²⁾ 성자 안에서 지음 받고 만물의 머리인 성자 아래 집결된 모든 피조물들은 최종적으로 만물의 근원인 성부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구원론적 의미와 우주론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며

39) Ibid., 389-90.

40) Ibid., 527.

41) Ibid., 534.

42) Ibid., 544.

그가 창조의 중보자임과 동시에 재창조의 중보자임을 보여준다.⁴³⁾ 바빙크는 이를 삼위일체적 맥락에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창조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다시 성부에게로 되돌아가기 위함이다.”⁴⁴⁾

III. 섭리

바빙크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창조만큼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게 된 그 순간부터, 곧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놓이게 되는데 이는 창조와 섭리의 관계가 동반관계임을 뜻한다.⁴⁵⁾ 양자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섭리를 계속적 창조 (*creatio continua*)로 파악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 “섭리와 창조는 모두 단일 행위이고, 단지 나타나는 양식에서 다를 뿐이다.”⁴⁶⁾

섭리의 기본적 정의에는 하나님의 예지, 계획, 목적으로 표현되는 내적 행위가 포함되지만 바빙크는 자신의 논의를 창조론 후에 나타나는 외적 행위, 즉 만물에 대한 정돈의 시행으로서 보존, 협력, 통치에 관한 외적 행위로 제한한다.⁴⁷⁾ 그는 계속해서 섭리가 창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모든

43) Ibid., 531.

44) Ibid., 534.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187: “창조나 구속에서나 재창조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성부로부터, 또한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자로 말미암아, 성부께로 돌아진다.”

45)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210.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통해서 파악된다. 바빙크, 『개혁교의학 2』, 600: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같은 순간에, 천지는 또한 하나님에 의해 보존된다.”

46)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54, 755.

47) Ibid., 742.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시하는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John H.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지지만 이들이 모두 이를 하나님의 행위로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다. 바빙크는 이런 이유에서 섭리를 혼합 조항 (articulus mixtus)이라고 부른다.⁴⁸⁾ ‘혼합조항’이라는 용어는 원래 자연적 이성과 특별 계시를 통해 파악되는 신앙고백의 조항을 가리킨다.⁴⁹⁾ 그렇다면 그가 이 용어를 선택한 것은 그가 비기독교적이며 헬라 철학에서 주장하는 섭리 이해를 수용한다는 뜻인가? 비기독교적 섭리 이해는 사실상 우연과 운명 사이를 오가는 개념으로서 참된 진리를 배척하는 것으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한 성경적 섭리개념과 조화될 수 없다. 따라서 바빙크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실천을 배제한 채 이론에만 국한되는 비기독교적 섭리 개념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⁵⁰⁾ 그는 자연 신학의 한 조항에다 기독교만의 독특한 이해가 추가된 것이 섭리라는 견해에 반대하는 주장을 내세운다: “섭리론은 철학적 체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인데, 즉 사물들의 현상이 자주 모순된다고 할지라도, ...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전능하고 편재한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한다는 고백이다. 그러한 고백은 ... 피상적인 낙관론과 ... 거만한 비관론에 대해 우리를 지킬 수 있다.”⁵¹⁾ 바빙크는 개혁신학의 전통적 입장에서 섭리를 앞서 언급된 보존, 협력, 통치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고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창조와 섭리의 관계를 더욱 선명하

Wright, SJ, “The Eternal Plan of Divine Providence,” *Theological Studies* 27 (1966), 27-57.

48)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37.

49) G. C. Berkouwer, *The Providence of God*, trans. Lewis B. Smedes (Grand Rapids: Eerdmans, 1952), 38.

50) Ibid., 41. 종교개혁자 칼빈은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이론에 머무르는 애페쿠로스 철학자들의 일반 섭리 개념을 반대했으나 이 일반 섭리에 하나님의 개별적 돌보심이라는 특별한 차원이 인정된다면 이들의 논지를 전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다.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16.4.

51)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69.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이차 원인을 인정하는 자신의 협력 이해와는 모순된다.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서울: 삼림, 2004), 188.

게 규명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⁵²⁾

1) 보존

보존은 피조된 세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고 지속적인 행위를 뜻한다. 이는 하나님의 편재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⁵³⁾ 따라서 이는 그의 창조 행위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행위이다. 세상은 존재하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의존적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느 9:6; 시 104:30; 행 17:28; 롬 11:32; 골 1:15; 히 1:3; 계 4:11).⁵⁴⁾

보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수동적 감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세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뜻한다. 즉 자신의 편재하시는 전능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떠받치고 계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유지 사역은 구체적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 104:30, 107:25).⁵⁵⁾ 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욥 33:4),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며 (시 33:13), 사람의 코에 숨결을 유지하시는 (욥 27:3) 하나님의 지속적이며 현재적인 사역을 가리킨다. 이는 온 피조물에 퍼진다. 공중의 새들 (마 6:26), 들의 백합화 (마 6:28), 참새들 (마 10:29), 까마귀 새끼들 (시 147:9), 심지어 사람의 머리카락 (마 10:30)에도 미친다. 피조물 하나하나가 모두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대로 존재한다.

52)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52. 섭리의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내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구분되지만 하나가 다른 것을 뒤따르는 부분들이나 일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서로 연관되며 언제나 서로를 포괄한다.

53) Ibid., 755.

54) Ibid., 736.

55)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210; 바빙크, 『개혁교의학 2』, 324.

또한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현존은 무의식적인 현존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의식적인 현존에 해당된다.⁵⁶⁾ 의식적 현존은 그가 만물을 보존하심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과 개별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뜻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는 이를 “정돈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만물을 돌보신다.”라고 표현했다.⁵⁷⁾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기적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자연 질서에 대한 외부적 개입으로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의 경륜에 근거한 직접적 행위로서 그의 다른 모든 행위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고유한 결과를 산출한다. 또한 이 현존은 피조물의 본성을 따라 차별화되는 현존이다. 따라서 보존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⁵⁸⁾ 그러나 보존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본질을 따라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오히려 이는 피조물들의 존재를 더욱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도록 유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해당된다. “창조는 단지 존재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반면, 보존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향한 점진적이고 항상 증가하는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기 때문이다.”⁵⁹⁾

보존을 논의함에 있어서 범신론적 사고에 해당하는 운명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차이를 용해시키고 섭리를 단순히 자연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바빙크는 운명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적 개념과 연결되기도 하였지만 거부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은 운명 (fate)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말하다 (fari)’에서 비롯된 파생어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불들고 지지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말씀을 지시한다면,” 이 용어가 기독교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 사실이다.⁶⁰⁾ 그러나 어거스틴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

56)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210-11.

57)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58.

58) Ibid., 759.

59) Ibid., 757, 756 (인용).

60) Ibid., 745.

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개념으로서의 운명을 더욱 중시하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운명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아무 것도 운명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주장함으로서 이를 궁극적으로 거부하였다.⁶¹⁾

2) 협력

협력 (concurrence)은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제일 원인이지만 하나님 아래서,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제이의 원인들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제일 원인과 협력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⁶²⁾

범신론은 하나님, 즉 제일 원인과 피조물인 제이 원인이 동일하다고 가르치므로 사실상 원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신과 세상이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곧 신의 행위로 귀결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인간이 범하는 죄악의 원인으로 규명하도록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사고이다. 성경이 인간이 범하는 죄악의 원인을 인간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삼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이 한편으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서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사고에 놓여 있다.⁶³⁾ 이와 정반대로 이신론에서 제이 원인은 제일 원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두 원인들은 마치 말 두 필이 마차를 끄는 것처럼 나란히 실재를 불러일으키는 동반 원인들 (causae sociæ)로 간주되었고 피조물이 자신의 행위의 원인이자 창조자로 간주된다.⁶⁴⁾

61) Ibid., 746.

62)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216; 칼빈, 『기독교 강요』, 1.17.6;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II/3, eds. G. W. Bromiley & T. F. Torrance (Edinburgh; T & T Clark, 1961), 99.

63)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215-16;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62-63.

64)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63.

그러나 교회는 이차적 원인들이 제일 원인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종속되지만, 이 종속 가운데 여전히 참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원인들의 결과는 전적으로 제일 원인의 산물임과 동시에 또한 전적으로 제이 원인의 산물이다. 바빙크는 이를 더욱 정확하게 원인들의 산물은 형식적으로 제이 원인들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적으로 두 원인 모두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나무가 타고, 나무가 타도록 하는 주체는 하나님뿐이지만, 형식적으로 타는 행위는 하나님에게 돌려져서는 아니 되고, 단지 주체로서의 나무에게 돌려져야만 한다.”⁶⁵⁾ 즉 인간이 범죄함에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와 능력을 하나님이 제공하시지만, 단지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전적으로 죄악의 원인 제공자인 인간에게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행위는 제이 원인을 전제하고 선행적으로 활동하며 더 나아가 이 활동 가운데 목격된 결과가 도출될 때 까지 동행한다는 사실에서 신적 협력의 의미가 발견된다.⁶⁶⁾

제일 원인과 제이 원인의 올바른 관계는 이신론의 주장처럼 서로 독립을 유지하는 병립관계도 아니며 범신론의 주장처럼 후자가 전자에 흡수되어 폐기되는 통합관계도 아니다. 제일 원인은 제이 원인을 통해서 작용하므로 양자사이에 구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일하다는 점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일원론적이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독립적임과 동시에 일원론적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세상과 맺는 관계에 대하여 유비적이다. 왜냐하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또한 독립적이면서도 일원론적이기 때문이다.⁶⁷⁾

65) Ibid., 765.

66) Ibid., 764.

67)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216.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서로 구별되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3) 통치

바빙크는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 (1563)』과 개혁신학에서 시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통치를 주로 보존과 함께 다룬다.⁶⁸⁾ 그 이유는 보존과 통치가 서로 구분되는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서로 관련되는 상호적인 차원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보존의 궁극적 목적은 통치이며 통치는 보존을 전제로 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피조물은 정의상 독립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로서 그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 따라서 바빙크에게 통치란 보존을 전제로 하는 섭리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섭리 전체를 포괄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개념에 해당된다.⁶⁹⁾

바빙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치를 왕이신 하나님의 행위의 관점에서 고찰한다.⁷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인간을 포함하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와 전 우주에 미치는 개념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며 (딤전 6:15; 계 19:6), 그의 왕국은 전 우주에 해당된다. 만물이 그의 통치 아래 놓여 있으며 (시 10:16, 24:7-8, 29:10, 44:4, 47:6-7, 74:12, 115:3, 사 33:22), 열방을 통치하며 (시 22:28, 47:8, 96:10; 램 10:7; 말 1:14), 모든 나라를 소유하며 (시 22:28, 82:8), 저주와 파멸을 보내고 (신 28:15ff),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시 93:3-4).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성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지켜보며 (사 33:15; 잠 5:21),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잠 21:1), 모든 사람의 거주와 그 경계를 정하며 (신 32:8; 행 17:26), 모든 걸음을 인도하며 (잠 5:21, 16:9, 19:21; 램 10:23), 하늘의 군대와 땅의 거민들에게 자기 뜻대로

68)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43, 744f, 751ff. 루터란 신학에서 섭리를 보존, 협력, 통치로 삼분화하는 고찰은 크벤슈테트 (J. A. Quenstedt)에 의해 정형화 되었다. Charles M. Wood, *The Question of Providenc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2008), 78, n. 10.

69)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65.

70) Ibid., 765ff;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217.

행한다 (단 4:35).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피조물의 개별적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⁷¹⁾ 그의 통치는 보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자연세계에는 자연법칙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이성적 피조물에게는 도덕법과 양심을 통해서 죄의 금지와 궁극적으로 이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확립된다.⁷²⁾ 그런데 자연과 도덕법에 기초한 윤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려는 사고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신론을 들 수 있다. 이신론은 특히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크게 확대된 19세기 이후로 이신론자들은 자연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안에 독립적인 기초를 확립하여 섭리를 종교적, 윤리적 영역에 제한시키려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⁷³⁾ 이신론은 하나님을 세상과 자연으로부터 분리하고 이를 통해 양자 사이의 경쟁 구도를 확립시켰고 더 나아가 신의 도움 없이 세상을 설명하고 스스로에게 자활적이며 자족적인 신성을 부여하려는 무신론으로 치닫는다. 이런 이유에서 바빙크는 “이신론자란 자신의 짧은 인생 가운데 무신론자가 될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비판한다.⁷⁴⁾

그러나 바빙크는 죄 또한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밝힌다.⁷⁵⁾ 하나님은 아무도 죄를 짓지 못하게 미리 막고 (창 20:6, 31:7), 악인들의 도모를 폐하며 (시 33:10), 시험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배풀고 (고전 10:13), 죄를 금지시키고, 죄인의 양심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통하여 죄를 억제시킨다. 이는 하늘이 죄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전능한 힘으로

71)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66.

72) Ibid., 757, 767.

73) Ibid., 749. 이신론과 19세기 자연과학의 흐름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참고 할 것. Herman Bavinck, “Christianity and Natural Science,” in *Essays on Religion, Science, and Religion*, ed. John Bolt, trans. Harry Boonstra & Gerrit Sheer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100ff.

74)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50.

75) Ibid., 768.

통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죄악과 마찬가지로 고난, 징벌의 고통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 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창 2:17), 모든 재난과 환란, 역경과 심판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서 인간에게 다가온다 (창 3:14ff; 신 28:15ff). 또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징계 (신 8:5; 용 1:12; 시 118:7; 잠 3:12; 램 10:24, 30:11; 히 12:6ff; 계 3:19)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IV. 두 교리에 나타난 연속성과 불연속성

개혁신학은 창조와 섭리의 밀접한 연관성을 인정하고 그 관계가 상호적이며 보완적이라고 가르쳐 왔다.⁷⁶⁾ 교회사에서 양자를 동일시하거나 혼동하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⁷⁷⁾ 그러나 바빙크에게 이들 사이에는 유사점이 존재할 뿐 아니라 중요한 차이점 또한 발견된다: “섭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될지라도,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⁷⁸⁾ 여기에서는 바빙크가 이해한 두 교리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연속성 (continuities)’과 ‘불연속성 (discontinuities)’이라는 주제를 사용하고자 한다. 전자는 두 교리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가리키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통일성과 발전으로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76) 칼빈, 『기독교 강요』, 1.16.1; Benjamin W. Farley, *The Providence of God* (Grand Rapids: Baker, 1988), 27-30.

77) 루터는 적어도 자신의 창세기 주해에 있어서 사실상 섭리를 창조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지닌다. Johannes Schwanke, *Creatio ex nihilo: Luthers Lehre vom der Schöpfung aus dem Nichts in der Großen Genesisvorlesung (1535-154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4), 141-48.

78)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52;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213.

후자는 두 교리 가운데 한 교리가 강조하는 바가 다른 교리에 의하여 더 이상 강조되지 않거나 그 특징이 전환되어 원래 특징이 상실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성격, 범신론과 이신론, 그리고 삼위일체론으로 나누어서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성격

무로부터 창조는 우선적으로 과거의 한 시점에 발생했던 하나님의 행위로서 단회적이며 비반복적인 성격을 지닌 반면에 섭리는 현재에 발생하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지속적이며 반복적이다.⁷⁹⁾ 창조는 실질적 행위이며 섭리는 이에 의존하고 후속하는 지속적인 행위라는 점에 있어서 창조와 구분된다.⁸⁰⁾ 따라서 바빙크가 섭리를 계속적 창조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인한 것은 사실상 두 교리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⁸¹⁾ 두 교리의 성격에 있어서 구분과 불연속성이 확인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섭리는 기본적으로 창조에 의존하고 이의 계속이라는 차원에서 창조의 후속조치라는 점에 있어서만 제한적 연속성이 담보된다.

첫째, 창조와 섭리는 그 성격에 있어서 모두 보편적이며 이 점에 있어서 연속성을 지닌다. 두 교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능한 행위가 피조세계에 직접 미친다는 차원에서, 전자는 피조세계의 생성에 있어서, 후자는 피조세계에 대한 보존과 통치에 있어서, 그 범위가 전 우주에 미치는 보편적 행위임을

79) 바빙크는 창조 행위를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로 규명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주장이지만 세상이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창조는 일시적이며 단회적인 행위에 해당된다. Ibid., 538-39.

80) Ibid., 755.

81)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213. 바르트는 ‘계속적 창조 (continuata creatio)’라는 대신에 ‘창조의 계속 (continuatio creation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Barth, *Church Dogmatics*, III/3, 7f.

보여준다. 창조에 있어서 바빙크가 강조하는 보편성은 피조세계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통해 증명된다.⁸²⁾ 그의 유기체적 세계관의 배경에는 창조와 섭리에 있어서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보편성이 자리 잡고 있다.

둘째, 창조와 섭리는 모두 인류의 향상과 발전을 지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실현은 창조가 아니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빙크가 이해한 무로부터 창조 교리는 피조세계의 기원과 생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지, 인류의 향상과 발전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섭리에 차원에 관한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향상된 삶은 창조에 기초하나 이와 별개로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여기에 두 교리의 불연속성이 발견된다. “창조와 섭리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만일 섭리가 매 순간 새롭게 간신히는 창조였다면, 피조물들 역시 매 순간 무로부터 산출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원인들의 연관, 연계, 질서는 전적으로 상실되고, 발전과 역사란 전혀 언급될 수 없을 것이다.”⁸³⁾

셋째, 창조와 섭리는 둘 다 하나님의 행위이지만 후자는 전자의 목적이며 전자는 후자의 전제조건에 해당된다.⁸⁴⁾ 내용에 있어서 양자는 구별되지 아니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교리에는 하나님의 전능하고 편재한 능력이 요구되며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음에서 창조로 전이되지도 않고, 창조에서 보존으로 전이되지도 않는다.”⁸⁵⁾ 두 교리는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이는 단지 하나님 외부에서 나타나는 양식에서만 구별되며 그 차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과 맺으시는 관계에 의해 규명된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무엇인가? 세상을 향한 첫 번째 계시 행위로서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출생과 출출이라는 내적 자기 전달 행위와 비교해

82) 바빙크, 『개혁교의학 2』, 547ff.

83) Ibid., 754.

84) Ibid., 757.

85) Ibid., 755.

볼 때 외적 사역 (*opera ad extra*)으로서 삼위의 협력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⁸⁶⁾ 이와 달리 섭리는 창조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바빙크는 과거에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에서 이해하여 이를 그의 내적 사역에 해당하는 작정 (*decree*)과 동일시했던 과거의 개혁파 신학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다.⁸⁷⁾ 창조는 삼위일체적 차원에서 외적 사역으로 이해되지만,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구별되는 외적 사역으로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범신론과 이신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빙크의 창조와 섭리 이해에 있어서 범신론과 이신론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범신론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시하므로 사실상 창조와 섭리 사이의 구별을 무시하게 되어 창조를 보존에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범신론은 하나님을 세상의 본질로, 세상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간주하므로 세상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곧 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고로 나아가게 된다.⁸⁸⁾ 이를 섭리론에 적용한다면, 범신론에서는 창조와 섭리가 지나치게 동일시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더 나아가서 양자는 서로 혼합되어 버린다. 이는 양자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가 그 차이를 완전히 부인하도록 만드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신론에 있어서 협력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⁸⁹⁾ 왜냐하면 협력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이차적 원인들이 일차적 원인에 해당하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창조자와 피조물, 또는 실체와

결과 사이의 구분이 망각되어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범신론은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재현들로만 존재하고 이것들 배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원인, 하나님의 실재, 하나님의 능력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 해당된다고 가르친다.⁹⁰⁾

반면에 이신론은 창조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섭리를 무시하고 이를 부인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에 단지 독자적 존재를 부여하는 차원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는 성경적 의미의 창조, 즉 피조세계가 지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은 전적으로 부인된다.⁹¹⁾ 여기에서 창조와 섭리 사이의 연속성은 전적으로 부인된다. 범신론에서 양자의 연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 완전히 무시되는 반면, 이신론에서 양자 사이의 연속성은 전적으로 부인된다. 이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불연속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신론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경향을 합리화하는가? 이는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시공간에 제한하여 본질상 사람으로 간주함으로서 가능해진다.⁹²⁾ 즉 하나님의 그의 본질과 본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자신의 능력을 행사함으로서 세상에 내재한다고 이해한다. 이는 사실상 성경적 편재성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⁹³⁾ 따라서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정되지만, 그의 섭리에 있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낱 사람과 같은 존재로 간주되므로 전능성은 사라지고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뜻한다. 이를 협력의 관점에 적용해 보면, 제일 원인의 가능성과 능력이 부인되고 더 나독립된 이차 원인이 진정한 원인으로 간주되며 심지어 자신의

86) Ibid., 419-20, 402.

87) Ibid., 740-44, 466-67.

88)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213; 바빙크, 『개혁교의학 2』, 209.

89)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62.

90) Ibid., 762-763.

91)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211.

92) 바빙크, 『개혁교의학 2』, 224.

93) Ibid., 209.

행위의 창조주로 인식되는 것을 뜻한다.⁹⁴⁾ 따라서 창조와 섭리는 불연속선상에 놓이게 되며 양자 사이의 연속성은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도치(reversal)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해진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되물리치고 하나님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을 때, 단지 자신의 자기 활동을 견지할 수 있다.”⁹⁵⁾ 즉 이신론의 창조와 섭리 이해에 있어서 연속성은 창조주가 인간으로, 피조물이 인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삼위일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빙크에게 창조론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이해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창조의 삼위일체적 사역을 반대하는 것은 삼위일체론을 이탈한 증거로 간주될 정도로 두 교리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⁹⁶⁾ 그렇다면 그의 섭리론에서 삼위일체론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차지하는가?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바빙크에게 창조와 섭리 두 교리 사이의 연속성은 어떤 차원에서 보장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불연속성의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빙크의 섭리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피조물들과 맺는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섭리가 비록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역으로서 만물이 매 순간 존재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사역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섭리론에 나타난 강조점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자신의 존재와 더불어 하나님에 내재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⁹⁷⁾ 이 내재적 현존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보장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섭리가 헬라철학에서 말하는 운명이나 결정론에

머무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을 보여준다.⁹⁸⁾ 창조가 피조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삼위 하나님의 외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섭리는 이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편재적 능력에 집중한다.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삼위일체적 논의는 섭리론의 핵심 사안이 아니며 여기에서 창조와 섭리 사이의 형식적 (formal) 불연속성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불연속성이 삼위일체적 차원에서 창조와 섭리 사이에 발견되는 본질적 (essential) 연속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해설에 있어서 이는 ‘창조’ (creatio, 창 1:1, 2), 처음 삼일 동안의 ‘구별’ (distinctio), 그리고 둘째 삼일 동안의 ‘장식’ (ornatus)으로 구분된다.⁹⁹⁾ 여기에서 구별과 장식은 2절에 언급된 공허와 혼동을 종결짓는 내재적 활동으로 간주된다. 성령, 즉 하나님의 신은 창조에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 창조주로 인식된다 (창 1:2; 시 33:6, 104:30). 또한 육일 동안의 창조 기간 중에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주관하는 창조주이자 섭리자로 나타난다. 이제 제 3위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작용한다. 적어도 이 기간 중에 발생한 ‘구별’과 ‘장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창조기사의 내용은 창조와 보존의 연속적이라는 전제하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는 삼위일체적 사역, 즉 말씀의 전능과 성령의 현존을 통해 담보되었다: “모든 것이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동시적이다. … 성령은 인격적, 내재적 원인으로, 이를 통해 만물이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며, 그들의 모양과 형태를 받으며, 그들의 목적으로 인도된다.”¹⁰⁰⁾

94) Ibid., 763.

95) Ibid., 750.

96) Ibid., 530.

97) Ibid., 752-53.

98) Meijers, *Objectiviteit en existentialiteit*, 101-2.

99) 바빙크, 『개혁교의학 2』, 600-1.

100) Ibid., 530-31; Meijers, *Objectiviteit en existentialiteit*, 102.

V. 평가 및 맺는 말

바빙크는 다른 신학자들과는 달리 섭리를 창조와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적한다. 두 교리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서 창조론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섭리론에 대한 이해가 또한 더욱 분명하게 조명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칼빈의 관점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바빙크 신학의 유기적 통일성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카르트(Karl Barth)는 바빙크를 포함한 전통적 섭리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왜냐하면 이 섭리론이 피조물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편재적 능력과 행위를 고찰함에 있어서 기독론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¹⁰¹⁾ 카르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섭리에 대한 답변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독론적 설명이 더 이상 정통주의 신학의 섭리론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다(제 26-28문).

물론 바빙크의 섭리 이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기초한 것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근거한 구원으로 연결된다.¹⁰²⁾ 그는 타락을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섭리론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난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¹⁰³⁾ 비록 섭리론과 구원론이 전적으로 구별되며 전자가 후자와 기독론 자체를 논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드러내는 그의 아들이며 은혜언약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기초로 삼는 것은 그의 섭리론에 나타난 풍성함을 증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1) Barth, *Church Dogmatics*, III/3, 30ff.

102) 바빙크, 『개혁교의학 2』, 738.

103) Ibid., 734.

그렇다면 바빙크의 섭리론이 이렇게 창조와 섭리와의 관계 속에서 전개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창조론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이데아론에 근거한 창조론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성자를 창조의 모델 또는 원형으로 간주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결과 삼위의 내재적 사역과 창조 사이에 유비적 관계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신성의 수여가 질적 차원이 아니라 양적 차원에 관한 것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¹⁰⁴⁾ 그의 이데아론의 영향력은 섭리론에도 영향을 미쳐 이를 창조와 비교하여 고찰하는 차원에 머무르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비록 하나님의 현존하는 편재적 능력으로서 성령이 이러한 추상적 이해를 어느 정도 탈피하도록 돋는다고 볼 수 있으나 바빙크의 이데아론은 섭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보다는 이를 하나의 관념의 실재화로만 간주하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04)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177; Meijers, *Objectiviteit en existentialiteit*, 114-15.

참고문헌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III/3*, ed. G. W. Bromiley & T. F. Torrance, Edinburgh; T & T Clark, 1961.
- Bavinck, Herman, "Christianity and Natural Science," in *Essays on Religion, Science, and Religion*, ed. John Bolt, trans. Harry Boonstra & Gerrit Sheer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 Berkouwer, G. C., *The Providence of God*, trans. Lewis B. Smedes, Grand Rapids: Eerdmans, 1952.
- Bremer, R. H., *Herman Bavinck als dogmaticus*, Kampen: Kok, 1961.
- Farley, Benjamin W., *The Providence of God*, Grand Rapids: Baker, 1988.
- Meijers, S., *Objectiviteit en existentialiteit: een onderzoek naar hun verhouding in de theologie van Herman Bavinck en in door hem beïnvloede concepties*, Kampen: Kok, 1979.
- Schwanke, Johannes, *Creatio ex nihilo: Luthers Lehre vom der Schöpfung aus dem Nichts in der Großen Genesisvorlesung (1535-154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4.
- Van der Kooi, Cornelis, "Herman Bavinck and Karl Barth on Christian Faith and Culture," *Calvin Theological Journal* 45 (2010), 72-78.
- Van Til, Howard J. & Robert E. Snow, John H. Stek & Davis A. Young, *Portraits of Creation: Biblical and Scientific Perspectives on the World's Form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0.
- Veenhof, J., *Revelatie en inspiratie: De Openbarings- en Schriftbeshowing van Herman Bavinck in vergelijking met die der ethische theolog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1968.
- Wood, Charles M., *The Question of Providenc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2008.

- Wright, S.J., John H., "The Eternal Plan of Divine Providence," *Theological Studies* 27 (1966), 27-57
- 바빙크, 해르만, 『계시철학』, 위거찬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_____. 『개혁교의학 2』, 박태현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_____. 『개혁교의학 개요』, 원광연 옮김,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4.
- 유해무, 『해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서울: 살림, 2004.
- 칼빈, 존, 『기독교 강요』.